



1월 발표한 ‘뽐뽐’으로 가요계를 강타한 모모랜드. 새로운 ‘대세’로 주목받으면서 방송기는 물론 광고계, 행사업계에서 모두 1순위로 떠올랐다.

사진제공 | 더블킥컴퍼니

대세 걸그룹 반열 오른 ‘모모랜드’…이젠 해외로!

새 앨범 ‘그레이트’ 10주 이상 5위권
광고·예능프로그램 등 섭외 1순위
6월 日 데뷔 앞두고 벌써부터 후끈

“슈퍼 그레이트!”
걸그룹 모모랜드의 ‘질주’가 무섭다. 역주행으로 시작한 이들의 ‘홍행 파워’는 각종 음원차트 섭렵, TV 음악프로그램 1위로 이어졌고, 마침내 데뷔 1년2개월 만에 ‘대세 걸그룹’으로 우뚝 서는데 성공했다.
1월 초 세 번째 미니앨범 ‘그레이트’(GREAT)으로 컴백한 후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세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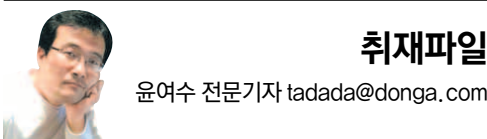
여간 썩내려간 성적이 근래 보기 드문 결과라 눈에 띈다. 활동 중간 불거졌던 ‘음반 사재기’의 흑과 타이틀곡 ‘뽐뽐’의 표절시비도 이들의 질주는 막지 못했다. 멤버 개개인의 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한 결과다.
모모랜드는 새 앨범 ‘그레이트’으로 멜론 등 주요 음원차트에서 27일까지 10주 이상 5위권에 머물고 있다. 27일 오후 3시 현재 헤이즈, 워너원 등을 누르고 4위에 오르며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또 각 방송사의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여섯 차례 1위를 차지했다.
모모랜드의 달라진 인기와 위치가 말해주듯 광고계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업계,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섭외 1순위로 떠올랐다.

모모랜드 소속사 더블킥컴퍼니 측에 따르면 모모랜드는 화장품, 음료 등 다수의 광고 촬영을 앞두고 있다. 추가로 다른 업체에서도 광고 모델 문외와 대학축제, 기업행사 등 각종 행사 에이전시에서도 출연 요청을 받고 있다. 25일 공식적인 앨범 활동이 끝난 만큼 이들의 섭외요청을 소화하면서 예능프로그램을 비롯해 부가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모모랜드는 국내에서 대세로 떠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해외로 활동 영역을 넓힌다. 이들은 6월18일 일본에서 음반을 내고 현지 시장에 정식 데뷔한다. 음반 발표와 함께 쇼케이스를 벌이며 해외에서도 입지를 넓혀나간다는 각오다.

앞서 일본 데뷔를 앞두고 2월28일, 3월3~4일 등 모두 사흘에 걸쳐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팬미팅을 벌였고, 총 2만5000명의 팬을 동원하며 가능성을 입증시켰다. 이번 팬미팅 현장에서 판매한 모모랜드의 앨범과 각종 굿즈도 모두 ‘완판’됐다.
소속사 측은 “정식으로 데뷔하기도 전인데 기대 이상의 반응에 현지 관계자들도 놀라워했다”면서 “특히 100명이 넘는 현지 매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모랜드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모모랜드가 이번 활동으로 예상치도 못한 인기와 관심을 받았다. 국내외를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라이브’와 ‘사냥개’…경찰관의 애환

(tvN 드라마)



취재파일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심장, 머리, 안면, 성기 부분을 제외한 팔 다리 근육에 쏜다. 임신부와 14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방송 중인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라이브’가 밝힌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중 일부다. 테이저건은 경찰관이 위급한 범죄현장에서 전기충격을 통해 범법자의 몸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킴으로써 사태를 진압하는 데 긴요하게 쓰인다. 하지만 자칫 범죄자가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실제 사용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시보순경 정유미는 폭력 사건 현장에서 테이저건으로 임신부의 어깨를 쏘 위험에 빠뜨려 감찰조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선배와 동료들은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충고한다. 결국 정유미는 이를 따른다. 선배와 동료들의 충고는 순전히 제복을 벗지 않기 위해서였다.
드라마 ‘라이브’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애환을 그리며 호응을 얻고 있다. 노회경 작가와 연출자 김규택 PD 등 제작진은 사전 충실한 취재를 통해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인권과 직무집행의 경계, 수사관을

돌리란 검경 갈등, 범죄예방 시스템의 최소한 정비와 개인정보 이용 및 노출의 사이 등 실제 현실 속 다양한 문제도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드러난다.
정유미의 감찰조사 과정이 표현한, 직업과 생계라는, 경찰관들의 인간적 고민도 비중 있게 다룬다. 때로는 비루하고 비참하거나, 또 때로는 치졸함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직업인’으로서 모습이다. 시청자 공감이 두터운 배경 가운데 이런 이야기에 대한 지지야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
최근 자유한국당이 14만 경찰관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았다. ‘사냥개’와 ‘미친개’라는 거친 표현이 등장한 대변인의 논평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일부 ‘정치경찰’을 향한 비판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우리는 사냥개가 아니다”며 전체 경찰 조직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예전처럼 권력에 휘둘림 당하는 ‘정치경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여기서 따져 보려는 건 아니다. 다만 ‘미친개’ 혹은 ‘사냥개’라는 맹렬한 비난이 여전히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인간적 고민을 이어가는 일선 경찰관들의 현실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라이브’ 속 지구대장 성동일 경정은 “국가는 우리를 책임지지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부하들에게 알아서 처신하라고 말한다. 아마도 드라마 ‘라이브’는 그 의미를 알려줄 것이라 기대한다.

양세형, 새 프로그램만 3편 ‘新 예능 대부’

현재 무한도전 포함 4편 출연 중…순발력·말솜씨 엄지척



양세형

방송인 양세형의 ‘대세 모드’는 계속된다.
양세형이 ‘예능 대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무대인 MBC ‘무한도전’이 31일 종영하지만 그의 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세형이 이미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무한도전’을 포함해 4편이며, 출연을 앞둔 프로그램은 3편이다. 그는 현재 MBC ‘전지적 참견 시점’과 SBS ‘집사부일체’, 케이블채널 XtvN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에 출연중이다. 모두 다 핵심 역할을 맡아 그의 역량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전지적 참견 시점’과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에서는 관찰자 입장으로, ‘집사부일체’를 통해서서는 이승기, 이상윤, 육성재와 함

께 어우러져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출연을 앞둔 프로그램은 29일과 4월5일 방송하는 2부작 예능프로그램 MBC ‘할머니네 통강아지’, 4월1일 첫 방송하는 tvN ‘선다방’, 2일 방송을 시작하는 올리브 ‘다 해먹는 요리학교 : 오늘 뭐 먹지?’ 등이다. ‘할머니네 통강아지’에서는 출연자들의 영상을 보며 어린시절 할머니 손에 자란 추억을 소개한다. ‘선다방’을 통해서 는 짝을 만나기 위해 선을 보는 남녀의 모습을 관찰하며 진행자의 면모를 드러낼 예정이다. ‘다 해먹는 요리학교’에서는 요리 실력을 마음껏 뽐낸다. 프로그램마다 각기 역할이 다르다.
한 지상파 예능국 관계자는 “양세형은 어느 프로그램에 출연해도 뛰어난 순발력을 보여준다. 말솜씨도 좋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모습도 좋아 예능 제작진이 선호하는 출연자”라고 말했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0만 관객 눈앞

역시 손예진 멜로퀸 파워

손예진이 스크린 톱스타로서 위상을 과시하며 다양한 성과를 일궈가고 있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통해 멜로영화의 부활 가능성을 제시하며 상업적 성공을 이끌고 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27일 현재 전국 1000여개관에서 누적 190만여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 것으로 추산된다. 75억원 규모의 총 제작비 규모로, 이번 주 안에 손익분기점인 200만 관객을 무난히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그 가운데 일정부분은 손예진의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의 몫이다. 흥행 수익에 비례해 주연배우에게 주는 러닝개런티가 아니라 에스팀엔터테인먼트가 실제 제작비의 일부를 투자한 덕분이다. 앞서 손예진은 2016년 ‘덕혜옹주’에 직접 제작비를 투자하기도 했다. 뻥뻥한 제작비에 힘을 보태려는 의도였다.
이번에는 에스팀엔터테인먼트가 나섰다. 소속 배우 손예진이 특히 멜로영화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해왔고, 그 탄탄한 이야기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이다.

손예진은 이 같은 가능성을 실현시킨 주인공임은 물론이다. 그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이전 자신의 멜로영화와는 또 달리 대비되는 캐릭터와 연기로 ‘갯예진’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관객과 평단의 지지를 얻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과 아이 앞에 다시 나타나는 기적 같은 판타지에 현실감을 더하며 그 특유의 순수한 매력을 과시한 힘이다.
이에 손예진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통해 한동안 침체됐던 멜로영화의 부활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유력한 상징이 됐다. 또 스크린 속 부진함을 면치 못해온 여배우들의 활약상에도 다시 기대를 걸게 하며 그 ‘대표선수’로서 다시 한번 관객에게 각인되고 있다. 윤여수 전문기자

▶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는 손예진.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연예

15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킷



휴가 나온 악뮤 찬혁 “안녕 동생?”

지난해 9월 해병대에 입대한 악동뮤지션의 이찬혁이 휴가를 즐기고 있다. 이찬혁은 “안녕 동생?”이라는 글과 함께 동생이자 팀 멤버인 이수현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찬혁은 한 손으로 얼굴을 대고 뽀뽀통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이수현은 컷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해 웃음을 준다. 팬들은 그의 제대일인 2019년 6월17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백승미 기자

#스포츠포스트 #악동뮤지션 #이찬혁 #이수현 #휴가

이 노래  이선희·아름다운 강산

세대와 이념 사상 초월 한민족에 바치는 노래

다음달 초 평양에서 열릴 우리 예술단 공연에서 출연가수들은 북한에 잘 알려졌거나 정서에 맞는 각자의 대표곡을 부른다. 이선희는 2003년 류경 정주영체육관 개관기념 통일음악회에서도 불렀던 ‘J에게’와 ‘아름다운 강산’을 이번 무대에서 다시 노래한다. ‘아름다운 강산’은 한반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 북한에서도 거부감 갖지 않을 선곡이다.
실제 ‘아름다운 강산’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해 수십 년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아름다운 강산’은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이 작사, 작곡해 1972년 발표했다. 그의 아들인 기타리스트 신대철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박정희 찬양가를 만들라는 청을 거절하면서 한민족 전체에 바치는 곡으로 만든 역작이다. 러닝타임만 10분10초에 이른다. 박정희 정권은 신중현 노래를 대거 금지곡으로 지정했고, 1974년에는 5년간 활동금지 조치를 당했다. 1980년 해금 후 ‘신중현과 뮤지파워’를 결성한 신중현은 ‘아름다운 강산’을 8분5초짜리로 다시 녹음해 수록했다. 이선희는 이를 바탕으로 1988년 리메이크하면서, ‘아름다운 강산’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계기가 됐다. 신중현이 부른 ‘아름다운 강산’이 장엄하고 비장하다면, 이선희 버전은 박력 있고 에너지 넘친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친박 단체들도 태극기를 들고 맞불집회를 벌이며 ‘아름다운 강산’을 불렀다. 이에 신대철은 박정희 딸인 박근혜를 위한 집회에서 이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소리쳤다.
좋은 음악은 사상과 이념,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다. ‘아름다운 강산’의 탄생과 소비실태를 되돌아보니 결과적으로 좌·우 이념을 넘었고, 남과 북의 경계를 넘었다. 인생은 김홍화복을 점칠 수 없는 새옹지마. 노래도 그렇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